

대교협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

● ● ● 김 영 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정부주도적인 획일정책이나 지시명령적 관여 등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대교협 발족의 근본적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학들은 근원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치기구이며, 학문공동체이며, 자기통제기관이다. 이러한 대학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조정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대교협의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I. 서론

대교협의 역사를 회고하면, 1982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출범했으니 그간의 세월을 계산해 보면 어언 4반세기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 지나간 과거를 잘 잊기 마련이지만 그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적어도 1980년대 당시의 우리 사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그 당시에 대교협이라는 협의기구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다소 장황하지만 회고해 보는 것이 앞으로 대교협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발단된 격동과 혼돈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5.17 시위 등을 이유로 신군부는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선포하고 각 대학의 학생회장들을 연행하는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등 우리나라 정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교육면에 있어서는 소위 '7.30 교육개혁조치'라는 '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되면서 80년대 대학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한 동기가 되었다.

당시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교육개혁조치의 내용들을 보면,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금지, 졸업정원제, 대학별 본고사 폐지, 사학법안에 대한 규제 등의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이유가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속성이 무시된 시책으로 80년대의 오랜 세월을 걸쳐 끊임 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다가 불과 5~6년 사이에 원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슬한 물의와 혼

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던 입시규제로 인해 '80~'82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미달사태는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획일적 규제로 많은 갈등을 빚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각 대학의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어야 할 대학교육에서 정부주도적인 획일정책이나 지시명령적 관여는 다양성을 지녀야 하는 대학교육의 특성을 위축시키며, 대학운영상의 책무성이나 의욕을 제고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8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대교협 발족의 근본적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대학들은 근원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치기구이며, 학문공동체이며, 자기통제기관이다. 이러한 대학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대학 간의 협의조정기구로서 협의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나라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대교협의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1982년 대교협 출범 당시의 역할기대에 대한 화두는 '대학의 자율화'라고 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당시 교육 정책 당국자들 간에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고등교육의 대중화단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대학 간의 원활한 의견소통을 위한 중간적 자율적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Ⅱ. 대교협의 성장과 발전과정

대교협이 설립된 이후 어언 25년간의 성장과정을 간단히 짚어보면, 크게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1982년 설립초기부터 '6.29 선언' 이

전인 1986년까지는 대체로 운영기반이 구축되고, 자율이라고는 하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타율적인 자율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1987년 당시 '6.29 선언'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이나 사회민주화의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대학자율화 추진에 기점이 되었다. 그 후 1995년부터 대학입학 업무가 대교협에 이관되었고, 대학평가 업무도 크게 강화되었으므로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대교협의 기관이 확충되고 자율화가 태동되었던 기간으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셋째,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대교협의 제반사업이 심화되고 정착되는 시기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관점에서는 자율화가 한층 정착되고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거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간 대교협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사업과 이를 통해서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을 촉진시키게 된 점이라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한 대학종합평가는 외적인 측면에서 교수채용과 시설설비의 확충, 내적인 면에서는 각종 규정의 개폐 및 면학분위기 확충과 연구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각 대학들은 교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들의 경우, 평가 전후 3년 동안의 교수 증가율은 평균 1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학종합평가는 이러한 대학교육 여건상의 지표성장 및 발전 외에도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과 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1992년부터 실시된 학과평가인정제는 대학과 학과수준에서 교육과정, 교수, 학

과재정, 시설, 설비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보면, 학과평가인정제는 학과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내용이 학문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작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교수 분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학과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조사에 의하면, 평가를 준비하면서 학과당 1~3명의 교수가 충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과평가인정제는 대학과 학과수준에서 교육과정, 교수, 학과재정, 시설, 설비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보면, 학과평가인정제는 학과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내용이 학문발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작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교수 분야의 측면에서 볼 때는, 학과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학에서 교수 충원이 이루어졌다.

결국 대학평가사업의 근본목적 중의 하나는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우리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때 대교협의 평가사업은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대교협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그간의 세월동안 변한 시대적 상황들을 개관해 보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대교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학의 정책과 대학의 발전을 정부 주도하에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대학 간

의 협의체인 대교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Ⅲ. 새로운 시대 변화와 대학의 변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대학의 변화를 몇 가지 관점에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학령인구 변화와 학생 특성의 변화

21세기의 대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대학학령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대학학령인구의 감소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0년의 약 5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68% 수준에 불과한 390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과 대학의 미충원률을 보더라도 대학 진학률은 학령인구의 86.7%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능가하고 미국의 73% 수준을 넘어 세계 제일의 수준이지만, 대학정원에 비추어 볼 때 충원시키기에는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출산율의 감소와 대체 고등교육의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생 수 부족은 대학경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의 구조조정과 학문 분야의 설치·운영 등에 큰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는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과 대학의 위상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에게는 커다란 위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나 진학자의 감소는 세계적 추세인바,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교육의 혜택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와 관련해 볼 때, 대학교육의 위상이 변화하여 대학교육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교육은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인든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유연한 개념으로 전환되어 대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감소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출산율의 감소가 가속화됨으로써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령인구의 절대인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혼관의 변화에 따라 무자녀 가정이나 출산에 대한 관념이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대체 고등교육 기회와 대학 평생교육 체제의 확충에 따라 정규 대학교육보다는 여러 경로에서 대학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는 절대 인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캠퍼스 중심의 정규 대학교육 인구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학생들의 특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규 진학자들에 국한되는 고정된 학생 개념이었지만, 향후 대학생의 특성은 연령과 인종, 그리고 수학형태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여학생의 증가, 성인 학습자와 시간제 학생의 증가, 기혼 학생의 증가, 그리고 외국 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의 특성이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결국 공급자 위주의 대학관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직업구조의 재편 등에 따라 재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고, 이 점에서 평생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가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 특성의 변화들은 결국 다양한 대학교육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어 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성에 따른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첫째, 상아탑적 교육관에서 교육산업적 교육관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학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향 중의 하나는 순수학문과 진리탐구적 기능에 치중해왔던 상아탑적 대학교육관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원리와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변모하는 '교육산업적'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산업적 대학관으로 바뀔 때 따라 수요자 중심이니, 학습고객주의니, 대학 경영이니 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산업적 대학관은 대학 경영의 효율성이나 학사경영의 내실화, 그리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개념과 교육의 질 관리 체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캠퍼스 중심 대학관에서 탈 캠퍼스 중심 대학관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캠퍼스 중심의 전통적 교육의 관점에서는 대학캠퍼스의 물리적 시설을 중시하고, 대학교육도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관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대학교육이 반드시 캠퍼스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캠퍼스 내외에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관도 캠퍼스 중심 대학관에서 탈 캠퍼스 중심 대학관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캠퍼스 중심 교육과 캠퍼스 외의 교육이 접목되는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가상대학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소지도 있으며, 탈 캠퍼스 중심 대학관으로의 변모는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 등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3.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세계화 추세

21세기 대학교육 환경변화와 관련된 주된 변화 중의 하나는 세계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도 초국적 교육과 국경 없는 교육의 개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세계화의 진전은 대학의 주된 환경변화의 하나로서 교육과정은 물론 교수의 연구개발 환경, 그리고 전문직과 관련된 자격증과 대학졸업이수 자격에 이르기까지 학사체제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학제와 학문분야 편제, 그리고 교수의 연구업적, 학생의 편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오고 대학교육 환경이 바뀌게 됨으로써 대학경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틀과는 달리 질적·전략적 경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합병(M&A)도 이루어질 것이고, 문을 닫는 대학도 생길 것으로 보이며, 다국적 대학이나 초 거대 대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입학 및 외국대학 진학 등과 관련된 제반교육 환경의 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학생 부족에 따른 외국 학생 유치에서부터 외국 교수의 초빙, 교육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의 틀에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4.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 경영전략의 변화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오고 대학교

육 환경이 바뀌게 됨으로써 대학경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틀과는 달리 질적·전략적 경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합병(M&A)도 이루어질 것이고, 문을 닫는 대학도 생길 것으로 보이며, 다국적 대학이나 초 거대 대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경영에서의 전략화는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와 국적을 초월한 대학교육 환경변화, 그리고 학생 수 감소와 질 관리 체제의 강화에 따른 생존전략의 일환이 될 것이다. 대학경영 전략화의 확산은 결국 대학에서의 경영마인드 도입과 사회적 수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시장원리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학경영에서 전략적 경영을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적은 학문분야나 인문사회계, 그리고 기초학문 분야의 위축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함께 총장의 리더십에 대한 견해도 바뀌게 되어 총장선출제도와 총장의 자질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소위 제3섹터라는 전문행정직의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Ⅳ. 대교협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며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인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로서 1982년 탄생되었다. 특별법률 제 3727호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교가 회원이 되어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양양하며, 대학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간 유일한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건의,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평가, 대학교육 정보자료의 개발, 대학 교직원의 연수,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그리고 기타 대학 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서비스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대학환경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대교협의 위상도 종래의 기능과 역할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대학 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과 관련된 현안을 관심사로 가져야 하고, 이들 구성원 집단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이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학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2. 정부와 대학 간 조율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대학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정부의 국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간 조율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율화가 이루어질수록 이러한 역할은 증대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교협은 중도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부의 요구와 대학의 요구를 조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과제는 시대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정책개발과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는 지식의 양과 지식생명주기가 단축되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은 위기를 맞게 되므로 대교협은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연구결과들을 대학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4. 정보지원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정보개발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네트워크와 자료개발, 정책제언과 국내외 대학의 개혁사례 등 교육·연구·봉사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개발이 중요하다.

5. 국제협력 기능의 강화

대학교육이 내국적 관점에서 국제적 관점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대교협의 기능도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정의 국제화, 자격증과 인력수급에 관한 국제적 협력구축,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대학평가,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등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6. 서비스 기능의 강화

대교협은 회원대학에 대한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때 존재의미가 있다. 회원대학에 필요한 교육서비스와 협의·조정 서비스 국내외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 서비스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한 과제들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대교협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즉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회원의 협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에 걸맞게 재정립하여 재구조화함으로써 대교협의 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노력을 통해 회원대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21세기 시대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의체로서의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학교육**

김영식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제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기획관리실장, 평생직업교육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